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와 적극적 평화

황 수 환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기획자 註]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 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를 통한 평화담론 확산과 「제주4·3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한편, ‘세계 평화의 섬’ 의 가치를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평화의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평화의 섬’ 실현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 4·3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 으로 공식 지정했다. 그 배경에는 첫째, 비극적 역사의 극복과 승화에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4·3 사건의 상처를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부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위원회 설립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국가 폭력에 의한 아픔을 화해와 용서로 풀어내며 세계적인 과거사 청산의 모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지정학적으로 제주는 평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한국, 일본, 중국을 잇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우리가 늘 보는 한반도 지도 혹은 세계지도를 뒤집어 본다면 제주가 해양으로 뻗어나가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하 제주포럼) 등을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는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핵심 브랜드로 구축하여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셋째, 제주는 남북 간 평화와 교류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1999년부터 북녘 동포에게 감귤 보내기 운동을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하여 소위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소위 ‘비타민 교류’ 로 부르며 남북 간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했다.

제주는 국가 폭력에 의한 아픔을 화해와 용서로 풀어내는 전 세계적인 과거사 청산 모델을 제시하며 적극적 평화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존재한다. 과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세계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며 도민 사회 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평화라는 거대 담론 위주의 정책이 실제 도민들의 실제 삶이나 경제적 혜택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가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모범을 보이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평화의 개념들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제주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제주를 중심으로 평화의 개념을 논의한 사례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평화라는 가치가 실질적이지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평화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 즉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인권·환경·갈등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적극적 평화의 적용과 평화의 개념의 확장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결코 분리되거나 독립된 개념이 아니다.¹⁾ 두 개념은 서로를 지탱하고 완성하는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negative’와 ‘positive’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생기는 오해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개념이 서로 분리된 것으로 파악한다.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이고, 적극적 평화는 관념적이고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갈통은 평화를 정의할 때 소극적 평화를 기초로 적극적 평화를 점차 만들어가면서 완성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시간적 흐름이 반드시 소극적 평화가 먼저 이뤄지고 적극적 평화가 그 다음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평화는 그 개념 속에 소극적 평화를 내포하며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물리적 폭력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적극적 평화인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 평화가 달성된 상태라면 소극적 평화는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 평화가 소극적 평화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 두 평화의 개념은 어느 하나가 우월하기보다는 서로 견인하는 관계이다. 일단 총성이 멈추고 물리적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사회의 불평등이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논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져 적극적 평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할 근본적인 동기가 제거되므로 소극적 평화가 훨씬 더 공고해질 수 있다.

1) Johan Galtung,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6, No. 3, pp. 167-191.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두 평화는 서로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 멈추고, 전쟁에 투입된 비용과 정책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복지, 인권 신장에 투입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갈등의 원인이 해소되어 구조적 불만이 감소되면서 물리적 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평화의 내구력 강화하게 된다. 만약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의 개념이 각각 독립적이라면 전쟁은 없지만 굶주림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도 평화라 주장하게 되는 기형적 상황이자 구조적 폭력이 가득한 가짜 평화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폭동이나 내전으로 물리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따라서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는 독립적이라기 보다 상호보완적이지 선순환하는 양방향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소극적 평화가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위한 충분조건으로 완전한 평화를 지향한다. 좀 더 쉽게 보면 소극적 평화가 평화의 하드웨어라면, 적극적 평화는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 하드웨어가 없으면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없고, 소프트웨어가 부실하면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다.

전쟁의 부재를 넘어선 평화의 의미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거나 개념화되지 않았다. 평화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긍정적인 목표들과 연관되어 있고 이상적인 사회의 비전에 내재되어 있지만, 평화의 구체적인 의미나 그 구성 요소는 분석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드물다. 실제로 평화 및 분쟁 연구는 평화보다 분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평화는 오랫동안 개념화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그동안 평화 및 분쟁 연구는 평화 자체보다 분쟁이나 폭력에 더 집중해 왔으며,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로만 과소 개념화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소극적 평화는 전쟁 부재이고,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폭력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실제 전후(post-war) 사회나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평화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평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좀 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평화의 발전을 모색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안정적 평화, 양질의 평화, 일상적 평화, 경합적 평화, 관계적 평화 등의 다양한 평화 개념들이 있다. 본고는 이들 개념을 통해 제주가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평화의 개념과 제언

안정적 평화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이 정립한 안정적 평화(Stable Peace)의 개념 틀로 분석하는 것은 제주의 평화가 단순한 전쟁의 부재를 넘어 얼마나 견고한 제도적, 문화적 기초를 갖추었는지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안정적 평화란 국가 간 혹은 집단 간에 무력 충돌을 해결

책으로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평화가 내재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물리적 충돌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²⁾ 법치와 민주적 제도가 공고하여 갈등이 예측 가능한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행위자들 사이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안정적 평화이다.

제주는 2005년 세계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정과 제주포럼 개최 등을 통해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군기지나 제2공항 건설과 같은 국가안보 사업과 지역적 가치가 충돌할 때,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은 아직 제주의 평화가 완전한 안정적 궤도에 오르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는 대규모 무력 충돌은 없으나 잠재적 긴장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평화와 안정적 평화 사이의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정적 평화 차원에서 제주는 안보와 평화의 균형을 찾는 작업이 요구된다. 안정적 평화는 안보 위협이 제거되었을 때 달성될 수 있는데, 제주는 동북아 안보의 요충지라는 특성상 국가안보 차원의 소극적 평화와 지역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적극적 평화 사이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안정적 평화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정적 평화의 관점에서 제주는 외부의 선언에 의존하는 평화를 넘어 도민들의 일상적 관계와 제도적 신뢰가 평화를 지탱하는 회복력 있는 공동체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찰스 쿵찬(Charles Kupchan) 역시 안정적 평화라는 개념적 틀을 통해 국가 간의 적대 관계가 어떻게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는지에 주목하면서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전쟁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³⁾ 쿵찬은 일방적 화해 조치, 상호 억제 및 호혜성, 사회적 결속 및 정체성 변화라는 형성 단계를 통해 일시적 화해를 넘어 제도적, 심리적으로 내재화된 안정적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주는 법제도적으로 안정적 평화를 위한 상황적 기반은 갖춰져있으나, 해군기지 갈등 등에서 나타나듯 도민 사회 내부의 심리적 결속과 정체성 통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제주는 외부적 선언을 넘어 내부적 신뢰와 정체성의 변화가 완성될 때 진정한 안정적 평화의 섬으로 역할을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질의 평화

피터 왈렌스틴(Peter Wallensteen)이 제시한 양질의 평화(Quality Peace)의 개념은 제주의 평화가 얼마나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양질의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회 구성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존엄성을 지키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⁴⁾ 왈렌스틴은 안보와 예측 가능성, 민주적 제도와 법치, 존엄성과

2) Kenneth E. Boulding, 1978, *Stable Pea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3) Charles Kupchan, 2010,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Princeton &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4) Peter Wallensteen, 2015, *Quality Peace: Peacebuilding, Victory and World Ord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인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양질의 평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중단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와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가 필요하고, 모든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을 보장받는 삶의 질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진행 중인 4·3 희생자 보상과 명예회복은 국가 폭력으로 훼손된 도민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에 회복적 정의실현 차원에서 양질의 평화로 진입하는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강정 해군기지나 제2공항 갈등은 제주가 민주적 제도를 통해 이견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양질의 역량을 시험받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국가안보와 지역의 평화적 가치가 충돌할 때 도민들이 미래를 예측가능한 안전한 상태로 느끼지 못한다면 양질의 평화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양질의 평화 관점에서, 제주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정의 회복과 현재의 갈등을 관리하는 민주적 장치의 작동이 결합하여 도민들이 일상에서 존엄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 때 가능하다.

일상적 평화

로저 맥킨티(Roger Mac Ginty)의 일상적 평화(Everyday Peace)는 거대 담론이나 협정보다는 분쟁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미시적인 실천에 주목한다.⁵⁾ 이 관점에서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을 보면 국가 주도의 상징성을 넘어 도민의 삶에 밀착된 미시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맥킨티는 일상적 평화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하루하루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한다. 회피와 적응은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규칙이나 에티켓으로 볼 수 있다.

제주에서는 4·3 이후 소위 ‘레드 콤플렉스’와 국가폭력의 공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도민들이 침묵하거나 갈등을 우회했던 일상적 전략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갈등 주체들이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에 살지만 심리적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며 폭력적 충돌을 막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강정마을 등 갈등 공동체 내에서 주민들이 서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형성한 미묘한 관계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평화의 성공 여부를 협정이나 조약, 선언이 아닌 소위 ‘아이들이 거리에서 안전한가?’, ‘시장의 경제활동은 활발한가?’와 같은 일상적인 지표를 평화의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 평화의 관점에서는 제주포럼에 몇 명의 전직 정상이 참석했는가보다 4·3 유가족과 군경 가족이 마을 잔치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혹은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일상

5) Roger Mac Ginty, 2014, “Everyday Peace: Bottom-up and Local Agency in Conflict-affected Societies,” *Security Dialogue*, Volume 45, Issue 6, pp.549-563.

적 다툼이 어떻게 중재되는지가 평화의 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일상적 평화는 공식적인 법제도의 구축보다 마을 어른들의 중재, 제주 지역 공동체의 수놓음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실질적인 평화 유지의 장치라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 도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평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주형 평화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시적인 국가주도 사업보다 주민 간의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미시적 프로젝트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합적 평화

경합적 평화(Agonistic Peace)는 평화를 단순히 갈등이 해결되거나 종식된 정적인 상태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억압되지 않고 민주적 절차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며 공존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한다.⁶⁾ 경합적 평화에서는 갈등을 평화의 장애물이 아닌 평화를 성숙시키는 동력으로 재해석한다. 경합적 평화는 갈등을 완전히 없애려는 시도가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억압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합적 평화에서는 상대방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논쟁할 권리가 있는 자로 인정한다.

경합적 평화의 관점에서는 제주 해군기지나 제2공항 갈등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발전의 방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평화의 형태를 주장하는 파트너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경합적 평화는 기존의 평화관점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또한 갈등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은폐하기보다, 공론장에서 충분히 표출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에너지를 민주적 참여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경합적 평화에서는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는 하나의 정의 아래 모든 도민을 묶으려 하지 않고,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을 통해 안보평화, 생태평화, 인권평화 등이 서로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하여 다원성을 인정하려 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대립은 제주의 평화가 박제된 선언이 아니라 살아있는 쟁점으로 경합적 해결 과정 자체가 제주의 민주주의와 평화 역량을 키우는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경합적 평화에서는 모든 원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벽한 화해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한 채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소위 ‘불편하지만 민주적인 공존’을 평화의 목표로 삼는다. 갈등을 조기에 종식하려 서두르기보다, 갈등이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서의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평화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닌 갈등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다루고, 어떻게 서로 다른 가치와 공존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경합적 평화의 추진 방향이다.

6) 강혁민, “제8장: 경합적 평화,” 서보혁·강혁민, 「평화개념 연구」(서울: 모시는 사람들, 2022), pp. 206-229.

나오며: 과제와 방향

평화 및 갈등 연구에 소극적 평화와 긍정적 평화의 구분을 도입한 이래, 이 두 개념은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평화의 두 가지 기본 범주를 구성해 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안정적 평화, 양질의 평화, 일상적 평화, 경합적 평화 등 다양한 평화의 개념을 통합적 구조 속에서 재구성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스웨덴 우메오 대학교(Umeå University)의 연구진은 평화를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닌 상황(Situational), 관계(Relational), 관념(Ideational)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하는 통합적 구조를 제시했다.⁷⁾

이처럼, 상황, 관계, 관념으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 평화의 개념적 발전을 모색할 수 있으며, 평화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서로 연결된 방식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첫째, 상황적 접근은 특정 지역의 상태나 조건으로 평화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관계적 접근은 해당 행위자나 집단 간의 관계의 성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 관념적 접근은 평화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담론을 연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을 결합한다면 평화 상태와 내용을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진화하는지,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추적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우메오 대학교에서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제주 '세계 평화의 섬'의 상황에 적용하여, 평화를 구축하고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및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적 접근 차원에서 구조와 제도의 평화가 필요하다. 상황적 접근은 특정 지역의 안보 상태와 정치적 질서를 중심으로 평화를 분석한다. 제주의 평화 수준을 물리적 폭력의 부재라는 안보차원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규범, 시민적 자유 정치적 질서라는 두 축으로 측정해야 한다. 안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없는 상태를 넘어,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예측 가능한 안전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강정 해군기지나 제2공항 갈등과 같은 사안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를 내실화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관계적 접근 차원에서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평화가 필요하다. 관계적 접근은 사회구성원 간 얽히고 설킨 관계의 질에 주목하는 행위자 중심의 분석이다. 제주 사회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 즉 '국가-도민', '4·3 유족-가해자', '이주민-원주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정책 강요가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숙의와 협력의 문화를 형성하여 지배 없는 상호작용이 구축되어야 한다.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상호 신뢰와 인정을 바탕으로 한 동료애를 넘어 우정의 단계로 나아가는 관계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7) Anna Jarstad et al, 2019, *THREE APPROACHES TO PEACE: A framework for describing and exploring varieties of peace*, Umeå Working Papers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No. 12.

셋째, 관념적 접근 차원은 열망과 담론의 평화가 필요하다. 관념적 접근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담론이 정책과 결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고찰한다. 중앙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도민 개개인이 가진 서로 다른 평화에 대한 비전과 그들 사이의 경합을 탐구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주의적 평화 혹은 포스트 자유주의 평화 담론에만 치중하지 말고, 제주 도민들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가 반영된 자생적 평화 관념을 정책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차원의 기후 위기, 난민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소에 대해 제주가 중재안을 내놓는 실천적 리더십도 요구된다. 안보를 통한 평화와 인권, 생태를 통한 평화라는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충돌할 때, 이를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가이드로 삼는 평화담론의 조정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황수환

現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다. 제주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고,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NK정책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관심연구 분야는 평화연구, 북한정치외교, 남북한 관계이다. 주요 연구로는 “평화협정의 유형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의 경로“(2017), “평화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평화의 방향“(2019), “평화구축 이론을 적용한 남북한 관계 평가“(2021), <평화학 개론>(공저, 2022), <북한의 당대회와 정치변화>(공저, 2025) 등이 있다.

2026년 5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